



고맙습니다

에이즈를 소재로 선택한 TV드라마 '고맙습니다'가 에이즈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에 큰 계기가 되는 고마운 드라마로 남기를 바라며...

글 김신혜 독립영화 감독·작가





‘에이즈’라는 소재는 대중문화에서 다루기를 꺼려하는 피해야할 소재 중 하나였다. 특히 TV 드라마에서 에이즈 관련한 소재를 다룬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고맙습니다’라는 MBC 수목드라마의 방영이 시작되면서 그 금기가 드디어 깨졌다.

의료진의 신수로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휴먼드라마 ‘고맙습니다’는 흥행 면에서도 동시간대 다른 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와의 경쟁 속에서 아주 선전하고 있어, 우리 드라마 소재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시청자의 수용 태도와 인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가족 드라마, 휴먼드라마를 표방하는 드라마 ‘고맙습니다’ 속에 위낙 민감한 소재인 ‘에이즈’와 관련한 내용을 무리 없이 드라마에 녹여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먼저 성과 관련한 연상 이미지가 강한 질병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HIV 바이러스 감염인으로 어린아이를 등장시킨다. 보통 감염인이 어린아이의 경우 감염인인 어머니(산모)를 통해 출산 시 수직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설정 상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의 신수에 의한 혈액 감염이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전혀 없는 일은 아니므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보편적인 상황을 만들어봤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일단 금기시 되던 소재를 다룬다는 점만으로도 큰 장벽을 넘은 셈임으로 그야말로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소재나 주제로 ‘에이즈’가 언급 되느냐 아니냐 보다 더 크고 시급한 문제는 파급력이 큰 매체에서 소재나 주제로 ‘에이즈’를 선택해 언급할 때 그 파장에 대해 제작진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취재와 학습의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을 연출해낼 경우 시청자들은 그로 인해 편견과 오해를 갖고 ‘에이즈’라는 질병을 생각하거나 에이즈 감염인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에 대한 과감한 대중문화의 두드림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너는 내 운명’을 들 수 있다. 전도연 씨가 열연한 여주인공이 HIV 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장하며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실화를 바탕으로 정면에서 깊게 다룬 작품이었다. 하지만 영화속에서 문제로 지적된 점들이 많아 법적 논쟁까지 거론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된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감염 경로에 대한 기본 정보인면서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스러운 소재나 주제일수록 제작진은 신중하고 철저한 전문가의 감수와 제작 전 충분한 취재와 학습을 통해 올바른 수용이 가

영화 속에서는 교도소수감 중 공중 목욕 시설을 따로 쓰게 하고, 방도 따로 쓰게 한다. 또 감염인인 여주인공이 거울을 보는데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돋은 자신의 모습을 인상하며 끔찍해 한다. 바람직한 부분들이 아니다. 하지만, 에이즈라는 소재를 정면에서 다루었고 작품이 대중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영화 '너는 내 운명'이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없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보다 소재나 주제의 폭이 훨씬 좁고 까다로운 TV드라마에서 에이즈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영향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파괴력과 파급력을 갖는 일이므로 조심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2권 책임이자 의무이다.

드라마 '고맙습니다'에 바라는 점은 이 드라마를 통해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드라마 종영까지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드라마 '고맙습니다'가 고마운 것은 앞으로 다른 드라마나 대중문화 장르 속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에이즈' 관련 소재나 주제가 다뤄져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보 전달에 큰 기여를 하는데 중요한 신호탄이 되어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드라마 제목처럼 끝까지 고맙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남기를 바란다.